

이 토론회는 왜 열리게 되었는가?

written by 뚝 & 루나

1>99년까지의 여운단위의 연대

대학 여성주의자들은 여성문제를 독자적인 운동의 영역으로 하고, 여성주의를 실천이론으로 삼으면서 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다. 여운단위들은 남한대학사회의의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실천을 통해서 각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여성학회나 자치모임, 연대체 형태를 통해서 학생회체계와는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 시기 여운단위들은 독자적인 여성운동 단위로서 대학사회의 성폭력 문제나 남성중심적인 대학문화에 대한 비판 활동을 전개해나간다. 특히 1996년 한총련 통일대축전 행사에 대한 연행과 정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각 학교의 여성운동단위들에게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9개의 여운단위¹⁾가 모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를 결성한다. 공대위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 서명운동, 문화제 등의 활동을 벌인다. 그 후 공대위 모임에서 각 학교 여학생 단위들은 각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어려움과 한계라는 현실상의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대학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연대의 필요를 느끼며 1997년 '학내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를 건설하게 된다. 이후 여성연대회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학내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사례 수집,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 등의 활동을 벌여나간다.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았던 여성 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서 98년 6월 여운단위들의 최초의 여성노동관련 연대체인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이후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하다가 99년 초에 자체적으로 해소된다. 여노대련 해소 이후 여노대련에 참가했던 몇몇 단위들²⁾이 참가하여 '여성노동' 모임이 만들어지고, 99년 메이데이에서 여/聲의 활동으로 이어진다.

99년에는 연대회의, 여노대련, 여성노동, 여/聲, 여성연대한판, 미인대회 반대 집회, 이정숙씨 사망사건 대책위, 군가산제 투쟁 등의 여성주의자들의 연속적인 연대활동이 이루어졌다.

2>99년 이후, 현재까지

99년 한판 이후의 자세한 상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해오신 각 단위에서 저보다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99년 이후 여태까지 연대를 고민하고 책임져왔던 단체가 해소되었고, 학생여운단위간 연대의 요청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정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2001년과 2002년 한판을 지나며 연대를 책임지는 뚜렷한 단위가 없는 상황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수도권지역단위나 활동의 중심에 서있지 못하는 단위들이 생겨났으며, 한판의 경우에도 활동력이 강한 몇몇 단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다 다양한 단위들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함에 있어서는 그 단위들끼리를 조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획단이나 단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매년 한판이 끝난 뒤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어도 해결할 수 있는 중심체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1) 동국대 총여, 연세대 여성자치연합, 서울대 관악여모, 이대 여성위원회, 서울산업대 총여, 동덕여대 여성행동위, 한양대 여위, 서울시립대 총여, 성균관대 총여

2) 살맛나는 세상, 이대 여위, 연대 여성자치모임연대, 성대 총여

학생여운단위의 사정이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아진다고 할 수 없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3>전쟁에 반대하는 여/聲, 그리고 mayday 여/聲

전쟁에 반대하는 여/聲은 '여성과 소수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 행패 행사를 함께한 단위들이 모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대 법대 여학생회의 경우는 행패의 무지개시위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연락을 받아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메이데이를 준비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의 연대체가 해소된 상태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여/聲은 하나의 연대체로서 메이데이를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ayday 여/聲으로서의 활동 또한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4월 19일 장애여성의 날과 26일 WAW연대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범대위의 피해자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 반여성적 반전집회에 대한 이야기, 기간제 교사 사건 입장 표명 등을 기획하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는 단위들끼리 모여 여성노동퀴즈 등을 진행하며 전야제(?)를 하려고 했으며, 노동절 당일에는 반여성적 반전집회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단위별로 X표를 준비하여 발언자의 반여성적 발언에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홍보가 충분히 되거나 제안이 충분히 되지 못하였고, 이에 4월 21일 언니네 노천카페에 문제제기 글이 올라왔으며, mayday 여/聲에서는 문제제기에 따른 적절한 해명없이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4월 30일 이후의 일정을 폐기하고 본 토론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단위 간 소통의 확장.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은 언제나 힘들다. 그리고 어렵다. 여성주의자로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녹록치 않음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내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준비한다거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 자체가 겹겹이 힘겨운 일이 된다.

물성적인 학교 당국은 어떠한 도움을 주기는커녕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학생회가 여성 운동 진영의 편에 서 있지도 않다. 학생회를 비롯한 운동 진영 내의 가부장성과 그림에도 보이고 있는 '우리들은 진보적이다-여성문제에 있어서도'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역시 언제나 위험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연대의 대상이자 투쟁의 대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고립된다는 것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겐 절실하게 '같은 길' 을 가고 있는, 혹은 '같은 고민' 을 지니고 있었지만 우리와는 또 다른 다양한 방식을 실험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했다. 형태는 모두 다름지언정- 총여학생회, 여성모임연대, 여성위원회, 여성주의 자치언론, 단과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 만나고 싶었다.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하고 싶었고, 나의 고민을 나누고 싶었다. 무수한 경험을 통해 당장 옆에 있는 학생회(들)보다는 이들이 훨씬 나와 가깝게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끊임없이 맞닥뜨려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성토하고 여성주의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소연하는 것, 실천을 담보할 수 없는 '비생산적' 활동으로 여겨지는 일조차 우리에게겐 소중한 기회였던 것이다. 다른 이들의 사정은 어떤지, 요즘 어떤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지 공유하고, 한 학단위로서 풀기 힘든 문제들에 함께 대응하고 고민하며 투쟁하는 장을 만들어나가는 것.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로를 통해 힘을 받으며 여성주의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연대' 하고 '소통' 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연대는 쉽지 않다. 여성운동 진영 내 모든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형태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도 아니기 때문이다. 거대한 중앙 조직에서 하달되는 '목표' 를 중심으로 하부 단위들이 활동하게 된다는 것은 각각의 단위들이 다양한 고민을 풀어나가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각각의 단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들에게 가장 주요한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 역시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눈감아버리는 것이다. 제각기 흩어져 있고 나름의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다른 활동을 학내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여성운동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게다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단위와 연대해야 하는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쉽게 대답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연대해야 하며, 우리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거대한 연대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요원한 일이겠지만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단위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발전시키기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연대의 상을 지금 명확하게 밝힌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금, 이 곳에서 머리를 맞대보자.

2003년 '여성연대 한판' 을 제안합니다.

'여성연대 한판' 은 매해 여름, 대학 내의 다양한 여성 운동 단위와 개인들이 모여 여성주의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함께 논의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조건 속에서 고립되기 십상인 여성주의자들의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장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특히 반(反)성폭력 운동의 확장과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대학 내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사이클 만들기 등이 해마다 한판을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의 대학들 중심으로 판이 구성되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한판이 진행되는 장소 및 일시, 그리고 다루지는 주제들에서 항상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여성주의 담론의 지형과 구체적인 고민의 지점들을 폭넓게 교류하기보다, 몇몇 학교에서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판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년에 한 번 있는 한판을 통해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상적인 교류가 가능한 기반을 만드는 것을 보다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노력도 상당히 부족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통 한판 당 행사가 진행되는 8월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5월부터 시간을 이전까지 보다 넉넉히 갖고 한판 기획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무수한 한계 지점에도 불구하고, 한판이 담보해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판을 준비한다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꼭 있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일시와 주최 학교 등을 '2003 여성연대 한판 기획단'에서 머리를 맞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초까지 한판 제안을 완료하고, 결합할 단위와 개인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중간에 결합할 여지를 남겨놓은 채 첫 번째 전체 기획단 회의를 진행한 뒤, 각 마당 별 기획단을 구성해 한판을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마당 별 기획단 차원에서도 별도로 이후에 결합할 인자들에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도록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계획을 짜고 논의해서, 한판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자리는 초동 제안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